

# 구산 스님 재조명 외국 제자들도 나섰다

### 보조사상연구원, 10월 4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 간화선을 세계에 알린 근현대 선지식 구산 스님의 입적 30주기를 맞아 외국인 제자들이 직접 구산 스님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마련된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과 순천 송광사(주지 무상)는 '구산 스님의 생애와 한국 선(禪)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10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종로 법륜사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구산 스님은 조계종 초대 종정인 효봉 스님의 계승자로 일반인 중심의 대중수련회를 처음 실시했으며, 국제선원을 최초로 개원해 외국인을 출가자로 받아들인 근현대 선지식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산 스님에게 불교를 배운 △로버트버스웰 △UCLA 교수가 '간화선에 있어서 의정의 전환', △마틴 베츨러 △佛 불교명상지도자 '화두선과 현대의 만남', △스티븐 베츨러 △佛 불교명상지도자가 '선불교 의식수행의 역사', △르노네우 비우 키토의대 교수가 '한국불교와의 인연'을 발표한다.

한국학자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구산수련의 생애와 사상', △김경집 위덕대 교수가 '구산수련의 평화와 결사운동'을 발표한다.

논평은 윤원철 서울대 교수, 오경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변희우 서울

대 철학과 외래교수, 최성렬 조선대 명예교수, 중앙승가대 교수 정덕 스님이 각각 맡는다.

한편, 국제학술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10월 5~14일 구산 스님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순천 송광사, 충무 미래사, 용화사, 양산 통도사, 밀양 표충사, 대구 동화사, 합천 해인사 등 사찰과 암자를 순례할 예정이다.

### 버스웰 "무자화두에 한국불교 공부"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구산 스님과의 인연을 털어놨다. 버스웰 교수는 "1974년 가을 송광사에 도착했다. 이미 태극 등 상좌부 전통에서 2년 동안 승려생활을 하였지만 선 전통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상태"라며 "구산 스님은 외국인을 제자로 받아주던 유일한 한국 선승이었다. 구산 스님의 배려 덕분에 현종, 현달, 함월 스님 등 다른 외국인 스님들과 함께 수선사에서 수행을 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버스웰 교수는 "구산 스님은 무자 공안을 참구 하도록 내려주셨는데 '왜 조주가 '무' 라고 했나' 라는 구산 스님의 그 첫 질문은 저를 한국 불교 학자로서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버스웰 교수는 "3개월간 수행 끝에 '만약 내가 한국 불교 수행을 배워야 한다면,

### 버스웰 교수 등 '한국 선 세계화' 모색 학술대회 후 구산 스님 발자취 순례

간화선 기법, 특히 의정(疑情)의 개념에 관해 더 배울 것이다"고 결심했다"며 "그 근본적인 의심에 대한 강조는 수행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혼동과 당혹감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힘은 집착과 자존감에서 벗어나고, 근본적인 무집착에 이르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 베츨러 "계율, 선정, 지혜 함께 닦음 강조"

마틴 베츨러 △佛 불교명상지도자도 구산 스님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마틴 베츨러 명상가는 "구산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스님을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젊은 여자일 뿐이었다"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스님의 질문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미소 짓는 것'이라고 답하자 스님은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이제는 지금도 내가 명상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깨달음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도록 지도하는 것과 맞닿



다양한 외국인 제자를 많이 제정한 구산 스님

아 있다"고 말했다. 마틴 베츨러는 구산 스님의 수행방향이 현대불교계에 계승되어야 한다고 "구산 스님은 계율, 선정, 지혜의 세 가지를 함께 닦아야 한다"며 이를 다리 세 개로 지탱하는 주전자 받침과 비교했다. 수행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오늘날에는 그다지 강조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한글 창제에 기여한 불교' 시선집중

### 동국대불교학술원, 10월 8일 전국학술대회 개최

한글날을 앞두고 '불교와 한글'의 관계를 조명하는 전국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은 10월 8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1부 훈민정음과 불교 사회, 2부 문자문화와 불교, 3부 한글과 불서번역, 4부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홍민 서울대 명예교수의 '정음 창제와 세종조 유포와 불교의 구도' △정우영 동국대 교수의 '훈민정음과 불교경전

의 관계' △권인한 성균관대 교수의 '우리말 차자 표기와 불교' △안상수 ag타이포그래피연구소 연구원의 '불경언해본과 한글 디자인' △김기중 동국대HK연구교수의 '신자로 필사본 금강경언해 연구' △김종진 동국대 교수의 '근대불교와 한글' 등이 발표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한글의 창제와 발전에 불교가 기여한 역사적 사실의 고찰에서부터 언해본서 문자의 디자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경허선사 바로 알기 2차 학술세미나

경허 스님이 주석한 서산 천장사(주지 허정)는 10월 12일 오후 1시 '제2회 경허선사 바로 알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산 천장사는 경허스님 열반 100주기를 맞아 지난해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는 이평래 총남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종강 변호사의 '경허성우와 수운 최제우' △고영섭 동국대

정제성과 경허의 전법' 등이 발표된다.

서산 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경허의 바람처럼 자유로웠던 삶을 다시 음미해 보는 일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유와 웃음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시원한 청량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장사는 학술세미나 후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갖는다. 도산 스님과 박남준 시인이 노래와 함께 시낭송을 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금강대, 美명문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금강대(총장·정병조)가 글로벌 인재양성 가속화를 위해 9월 23일 미국 보이시 주립대학과 26일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양 대학간 △학생·교수 및 행정직 직원의 교류 △합동 연구·심포지움·워크숍 활동 △출판물·보고서, 그리고 기타 학술적 자료와 정보 교환 △공동 관심 분야의 출판과 정보 네트워크 공유 등 교육적·문화적 프로그램을 위한 협력이다. 또한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행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작 소양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가치 아래 현재 해외 8개국 28개 대학 및 교육기관과 인적교류 및 학점교환, 복수학위제, 학술교류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정병조 총장은 "그동안 영예권 대학과의 교류가 미흡했는데 이번 협약체결로 보다 다양한 대학교육의 국제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며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금강대학교가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의 가속화 및 국제사회에 금강대학교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강대는 소수정예교육의 일환으로 국

노덕현 기자

# “성철의 돈오전성 경계는 혜능의 선지와 일치”

### '육조혜능과 퇴옹성철, 그리고 한국불교'에서 한목소리

혜능 스님의 열반 1300주기와 성철 스님의 열반 20주기를 추모하는 학술포럼이 열렸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월백)은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육조혜능과 퇴옹성철, 그리고 한국불교'를 주제로 추모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 원로위원 고우 스님은 기초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육조혜능, 성철퇴옹 스님의 가르침이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고우 스님은 "불교에서는 스스로의 성품(性品)을 확인하라고 강조한다"며 "자신의 성품을 차분히 들여다 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우 스님은 또 "이러한 수행은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된다"며 "다양한 경계에 접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근본 힘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첫 발표 '내가 본 혜능과 성철'을 맡은 이은운 前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는 "육조혜능 스님의 돈오 남종선은 서양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비견되는 불교개혁이자 '불교혁명'이었다"며 "성철 스님이 강조한 화합대오한 돈오전성의 경계는 혜능 스님의 돈오 남종선 선지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혜능과 한국 선불교 전통' 주제발표에서 "한국 불교의 현재 위기는 대중들이 불교를 '성찰' 하고 수행자들이 '지식'을 되돌아보며 학자들이 '인간화'에 앞장설 때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명원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퇴옹성철과 육조혜능: 성철스님의 <돈황본 육조단경> 현토·편역을 고찰하면 서'에서 "성철 스님은 그 자신의 생애를 통해 열반의 세계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이날 국제세미나에는 성철 스님의 제자를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가르침을 준다"며 "이는 <육조단경> 안에 요약된 구원의 메시지를 제공하는 이로 대중에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한편,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월백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육조혜능 스님은 오늘날 세계에서 선(禪)불교가 살아 숨 쉬게 된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분"이라면서 "생

전에 육조스님의 가르침을 자주 말씀하셨던 성철 큰스님 또한 한국 근현대불교의 수행가풍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육조혜능 스님과 퇴옹성철 스님의 본래면목을 철견하시고 수행의 길에서 항상 청안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밝은사람들연구소 제12회 학술연찬회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옥)는 1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괴로움'을 주제로 제12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초기불교' △한상사 용성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의 '선불교' △박

승찬 가톨릭대 교수의 '서양철학' △전중환 경희대 교수의 '진화심리학' △권석만 서울대 교수의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괴로움'에 대해 고찰한 내용이 발표된다.

학술연찬회 발표내용은 교재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로 발간된다. (02)720-3629 노덕현 기자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 희소식

##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제 집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모집중

## 禪大韓佛敎 曹溪宗

새롭게 변화하는 불법시대!  
이땅에 부처님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중도를 모십니다.  
또 한 새롭게 새로운 중단에서 중도의  
단합및사회봉사와 중단 활동에 동참하실  
스님을정성다해 모십니다.

### 입종안내

- 승적원부(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1장
- 반명합사진 4매(대가가수한 사진)
- 승려증,입명장,사찰등록증,발급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9

① 禪 대한불교 조계종  
중단 가입 문의: (02) 959-1825  
대한禪報신문사 문의: (02) 962-3467  
불교중단사업부 문의: 070-7391-7767

본 중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의 수익금은  
중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중도가 잘 되어야 중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02)393-8027

지도: 봉원사 법화정토외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